

# 韓國 大學의 海外分校政策: 전망과 과제

金 鍾 一

(建國大 社會福祉學科)

## 1. 머리말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정치 및 군사적 냉전상태의 해소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학술과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로 여겨지던 이념적 경직성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 사이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社會主義圈 대학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우리 대학들의 교류 상대가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선진 자본주의 나라로 지극히 제한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교류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exchange)가 아닌 우리측의 일방적인 수입에 불과하여 문화적 식민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따라서昨今の 상황은 우리의 認識地平을 확대하고 교류의 영역과 선택의 폭(alternatives)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교류는 주로 외국 대학과의 '자매 결연'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이러한 선전용 교류를 그만두고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해외에 우리나라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代案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대학이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외 분교의 존재는 한국과 같이 만성적인 '文化逆調'에 시달리는 나라에게 더욱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른바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대학의 국제 교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분교 설립과 관계된 여러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지만, 해당 자료의 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斯界의 논의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은 하나의 試論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 2. 韓國 大學의 海外分校 現況과 外國의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재 국내의 어느 대학도 해외에 분교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분교를 설치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학교도 없는 것 같다. 다만 일부 사립 대학들이 중국 연변과 같이 우리 동포들이 밀집

하여 사는 지역에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된 정도이다. 물론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 미국 Los Angeles 에 소재한 某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국대학의 분교가 아닌 현지 미국 학교에 불과한 이상 여기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 분교에 관한 소문과 논의는 무성하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尠無한 상태이다. 그러면 우리보다 대학의 역사가 길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선진 외국의 대학들 중에도 常設的 해외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 분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대부분이 미국의 주립대학들로서 이들의 설립도 주로 해외 주둔 미군이나 군속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의 미 8군 영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Maryland 대학 분교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렇게 언어 문제나 경제적 능력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가진 선진국의 대학들조차 해외 분교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분교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 많은 외국의 학생들이 自國의 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는데 구태여 별도의 분교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질 필요도 없고 또 물리적인 분교의 존재가 현지에서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 수출’이 해외 분교라는 복잡한 방식을 피하고 외국 유학생들을 自國으로 誘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유학생들이 쓰는 학비와 생활비가 현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는 외국 학생들을 자기 나라에 유치·적용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과 기구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수준이 낮고 국제적 영향력이 미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국 학생 유치 정책을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필자가 유학하였던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FSU)의 해외 분교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FSU는 공식적으로 세계의 외국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설치된 분교는 International Study Center 라는 이름으로, 파나마 공화국에 설치된 것은 Panama Canal Branch 로 각각 불리우고 있다. 이 가운데 파나마 분교는 그 성격상 서울의 Maryland 대학 분교와 유사한 것으로서 파나마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현지의 미국 거류민 등에게 영어, 스페인어와 같은 어학 과목 그리고 美洲學(inter-american studies)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분야의 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수진은 FSU 본교의 교수진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현지에 거주하는데 일부 전공 분야에서는 본교의 교수들이 한 학기씩 교환 교수로 와서 가르치기도 한다. 한편, 런던과 플로렌스에 소재한 분교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 전공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개설하며 파나마 분교와는 달리 대학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연극학(theater)과 경영학이 중심 분야인 반면, 플로렌스에서는 美術史와 古典學(classics) 그리고 이탈리아 문학이 중심을 이룬다. 이 두 곳의 강의는 모두 본교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운번제로 파견되어 한 학기를 현지에서 거주하게 된다. 물론 분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되며, 학교측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분교 수업(특히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된 과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 常設 분교는 아니지만, 호텔경영학(hospitality administration)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름 학기 프로그램을 해마다 스위스에서 개설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본교 교수들과 현지 실무자들의 강의 그리고 현장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SU 분교 정책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한 전공 영역의 개설, 그리고 常設 분교와 계절 학기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한 분교 형태의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 韓國大學의 海外分校：可能性과 限界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해외 분교를 설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한 점은 분교 설립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해외 분교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어서는 아닐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 경제적인 타당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經濟性'에 치중한 나머지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해외 분교라고 해도 대학의 본질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교의 설치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장소의 문제이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각 대학의 목적에 부합되며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인가? 둘째는 전공 영역의 문제이다. 어떠한 전공 분야를 개설하는 것이 분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셋째는 분교의 조직과 규모에 관한 점이다. 효율적인 분교의 형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절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동안 보도된 국내 일부 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계획은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곤란하지만, 대체로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고 發想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대부분의 분교 이야기가 최근의 북방 정책의 渦中에서 나왔으며 그 대상 지역으로 중국의 연변 지방이 주로 거론된 사실을 보아도 이들 대학의 분교 설립과 관계된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시류를 타고 다분히 感傷的인(?) 동기에서 시작된 듯한 느낌이다. 한 대학이 분교를, 그것도 다른 나라에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은 收支가 맞지 않고 형편이 나쁠 경우에 철수하면 그만이나, 한번 설립된 대학은 회사 문을 닫듯 간단히 폐쇄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교를 추

진하는 주체측이 목적과 동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학의 허약한 재정 실태를 감안하면 추상적 구호를 앞세운 분교 설립은 도태성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한국의 대학들이 해외 분교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구체적으로 말해서 수익성 있는 분교의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의 분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곳은 우선 韓人 교포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일 것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리스나 뉴욕, 일본의 오오사카, 중국의 연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련의 중앙 아시아 지역도 고려해 볼 만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 설치되는 분교는 현지 교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수·보존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교민이 아닌 그 나라 사람들에겐 한국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 소재한 Yes-hiva 대학은 이스라엘 본국에서 설립한 분교는 아니지만, 현지의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교육하고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소위 Melting Pot 이라 불리우는 미국 사회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 나가는 데 一助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동포들을 위해 조선대학이 이미 오래 전에 설립되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외화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존재를 외국에 홍보해 왔으나, 주로 북한과의 대결 관계를 의식한 '소모성 선전'에 치우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는 일에는 너무도 등한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해외 동포들에게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노력은 尠無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설립되는 분교들은 이러한 면에서 현지의 후세 동포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지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낙후된 第三世界の 나라들이다. 그 중에서도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적합한 대상이다. 이 지역에는 현지의 경제 발전 단계와 산업 구조를 감안한 農工·기술계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들 분교를 매개로 하여 현지 학생들을 국내의 분교에 유학시켜서 고급의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 이러한 지역에 설치되는 분교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학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동유럽 지역에 분교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나라들은 오랫동안 계획과 통제에 의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시험하고 있는 바, 고도로 발달된 서구 자본주의의 이론이나 제도보다는 한국과 같은 後發 자본주의 국가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의 분교 설치를 통해서 이 경험을 나누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일종의 產學協同 체계를 갖춘 현지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업은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家電産業이나 섬유 분야의 현지 공장을 세워 그 지역의 분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이윤만을 빼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 설치되는 분교를 국내 학생들의 동구권 언어의 연수 기관으로 활용해도 좋다.

다음으로 논의해 볼 사항은 해외 분교에 어떠한 전공 분야를 개설하는 것이 이들 분교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 영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지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韓人 교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한국학이나 민속학 그리고 인류학이나 사회학 같은 전공들을 중점적으로 개설하여 현지

분교로 하여금 민족의 뿌리를 보존하는 학문적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은 여러 민족과 문화가 共存하고 있는 사회(예를 들어, 미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포들에게 문화적 배타성을 조장하는 방향의 고루한 민족 교육은 禁物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뿌리를 알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他民族과의 共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自文化 中心主義(ethnocentrism)는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第三世界에 위치할 분교는 농업·기술 분야를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는 이들 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醫藥 계통의 전공 분야를 설치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분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구권에 세워질 분교는 경영학을 중심한 商經 계열의 학과와 전자공학 등의 응용 工學 계통의 학과 그리고 東歐의 언어 과목 등을 중점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외 분교에 개설되는 전공 영역은 현지의 수요와 필요를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학문적 능력과 인력 상황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교의 조직과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蛇足같이 들리겠지만,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巨大主義에 대한 맹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리 이름을 하나 지을 때에도 예외없이 ‘大橋’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고, 매사에 하다 못해 ‘동양 제일’이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양이 차는 풍토 속에서 길들여진 한국의 대학들이 행여 해외 분교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거대주의’ 사고의 지배를 받거나 앓을지 염려스럽기에 몇 마디 조언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고도 알차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의 필요와 특성을 무시한 채 학과를 마구 증설하거나 학교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꼭 常設 분교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분교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해당 분교의 적정 규모와 조직 형태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분교의 설치 가능성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전망해 보았지만, 가능성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언어 장벽의 문제이다. 해당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나 국내 대학의 현실은 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특히, 영어권을 제외한 지역(예를 들어 東歐圈)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들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현지에서 교수 요원을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교수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분교와 본교 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정에 어두운 현지 출신 교수들이 본교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내 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 같다. 둘째는 재정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충분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해외 분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분교 설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는 연변 지역의 경우 이곳이 엄연한 사회주의 사회임을 감안할 때 대학의 수익성이라는 문제를 한국의 사학들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연변과 같은 곳에는 그 特性上 수익성을 위주로 한 한국계 대학의 설립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수익성 문제를 초월해서 국립대학이 분교 설립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국내의 대기업들이 사회적 봉사의 일환으로 현지에 대학을 세우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사학들은 미국과 같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에만 분교를 설립하는 편이 오히려 나으리라 생각된다. 셋째는 지속적

인 需要創出의 과제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대체로 '顧客(customer)'으로서의 학생을 의식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대학의 간판만 걸어 놓으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많은 학생들이 제발로 모여드는 사회 속에서 시대의 변화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대학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 그중에서도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다양하며 대학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에 분교를 세울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지의 수요와 필요를 적절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갖추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와는 밀접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호의적 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일에 실패할 경우 한국 대학의 해외 분교는 '閉店休業'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결국 時流에 영합하여 성급하게 분교를 추진하지 않고 대학다운 합리성과 창의성을 근거로 한 분교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 4. 外國 大學의 國內進出에 대하여

필자가 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이야기가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法的인 제약이나 문화적 측면의 문제들 때문에 한국 진출을 망설이는 외국 대학도 있을 것이고, 經濟性을 이유로 분교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글의 序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기 나라로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의 留學 自由化 정책으로 유학생의 數가 급증하게 되자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치 경쟁은 이제 미국 대학들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심지어 호주의 대학들까지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나

라의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할 蓋然性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는 대학교육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은 학문적으로 낙후하고 안일한 경영에 젖어 있는 국내 대학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선진 학문의 도입이 더욱 신속해지고 효율적인 관리 기법이 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대학들도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를 증대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경쟁에 뒤지거나 舊態依然한 대학은 도태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는 자율적으로 대학의 質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 외국 유학을 희망하는 상당 수의 학생들을 흡수하여 돈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실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修學하기에 충분한 語學 실력과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무작정 출국하여 현지의 language school 등에서 엄청난 外貨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代案이 아닐까 한다. 또한 국내 분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분교를 유학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 기관으로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반면에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초래할 문제들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외국 문화 崇拜風潮가 심화되고 학생들 사이에 異質感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대학의 학문적 수준이나 사회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받아 들여야 할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에 설치된 외국 대학의 분교는 이른바 文化逆調의 현상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민족적 正體性에 혼란이 일어날 素地도 많다. 필자는 외국에서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정부가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 看過할 수 없는 문제점은 機能主義 교육이 擴大再生産될 가능성이다. 오늘날 소위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대학을 지배하는 思潮가 기능주의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기능주의의 長·短點에 대해서는 이미 술한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西歐式 정치·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기능주의 교육의 확산이 한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끝으로 지적할 문제는 商業的 動機에 치중한 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弊惡만 초래할 상업적 외국 대학을 끌라내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분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덧붙여 似而非 학교의 亂立도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近者에 일어났던 가짜 외국 學位를 둘러싼 소동이 有名無實한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를 통해 재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별히 학교 설립이 자유롭고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는 미국계 사립대학들 중에 이러한 학교들이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내 지역대학협의회로부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accreditation)을 인정받지 못한 영터리 학교들이다.

## 5. 맺음말

대학의 국제 교류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자유와 개방은 대학 사회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국제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사상과 정보,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며 인류의 共同善을 추구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물론 이러한 교류가 ‘문화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파괴하고 西歐化를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게 하는 否定的 結果를 초래한 점도 비판되어야 마땅하다. 흔히들 말하기를 “문화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라고 한다. 결국 선진국과의 문화 교류는 받아 들이는 쪽의 대비가 철저하지 못할 때 교류가 아닌 일방적 洪

水로 돌변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아노미 현상은 식민지 시대 이래의 外來文化의 폭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문화 역량을 주체적으로 발휘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현재 추진중인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동안 일방적으로 받아만 오던 위치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엇을 어디에다 어떻게 줄 것인가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외 분교의 최적지는 韓人 교포들이 모여 사는 중국의 연변 지역과 미국이다. 이곳에 설치되는 분교는 韓國學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갖추어 현지의 교민들과 한국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연변 쪽에는 經濟性에 민감한 사립대학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의 진출이 바람직하고 사립대학들은 美洲 지역에 분교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東歐나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낙후된 第三世界の 나라들도 고려해 볼 만한 곳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 분교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하기가 어렵다. 언어 장벽과 재정상의 취약점 등 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대학의 內實化가 先行되어야만 한다.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는 그다지 현실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이들로부터 도움 받기를 원하는 분야, 이를테면 첨단 과학 분야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어느 대학이 해외 분교에 그와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구호나 명분을 앞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0년대초의 지방 분교 정책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반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